



글·사진: 편집부

##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개막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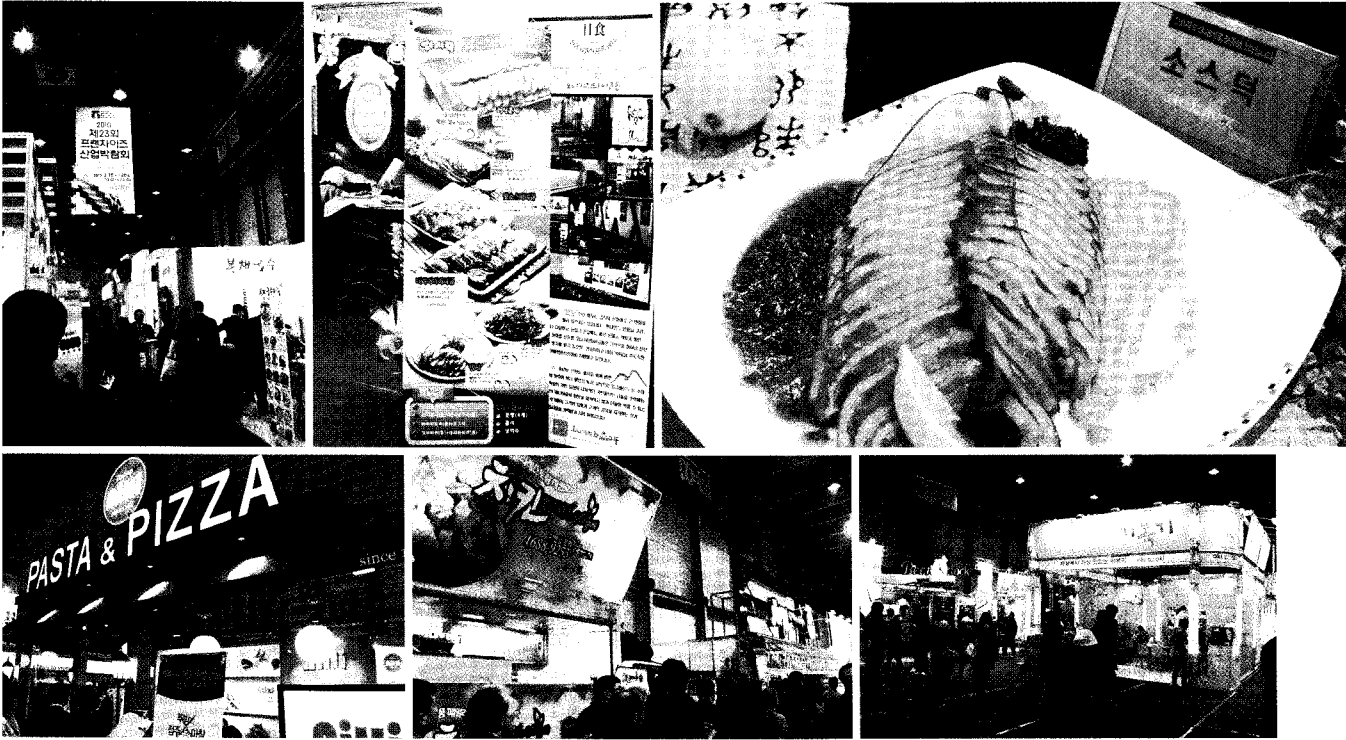
- 행사명 :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
- 전시기간 : 2010년 3월 18일(목) ~ 20일(토)
- 전시장소 : SETEC(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)
- 전시규모 : 350개 부스, 150개 업체
- 주최 : (사)한국프랜차이즈협회, 조선일보사

국내의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및 가맹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 23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. 3월 18일(목)부터 20일(토)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외식, 서비스, 도소매 등에 관련된 15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창업희망자 및

창업준비자 등에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"이번 프랜차이즈박람회에서는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 업체 참가율이 높은 편"이라고 밝히면서 "창업 상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"고 덧붙였다. 이어 "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"고 전하였다.

이번 박람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있게 개최된 것으로 치킨류, 김밥, 호프, 아이스크림류 등의 외식 관련 업체를 비롯하여 편의점, 주



방기,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창업 희망자들에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. 오리와 관련된 업체로는 우리 회원사 (주)정다운에서 오리를 납품받는 훈제오리고기 배달전문점인 러쉬덕이 참관하여 오리고기 홍보를 하였다.

박람회장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는데,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계층의 예비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. 각 업체에서 운영하는 상담부스에는 진지한 모습으로 상담을 받는 20~30대로 보이는 참관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.

미래관, 비전관, 창의관으로 총 3개의 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비슷한 업종 및 업태끼리 부스를 엮어놓아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며, 최다 업체가 참가한 외식산업 업체들은 시식 코너도 마련하여 참관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.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식제품은 바로 치킨이었다. 치킨 냄새가 온 전시

장을 가득 메우며 먹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정도였으니, 이러한 치킨 시식 행렬에 시식용 맥주 역시 참관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. 최근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떡볶이 등 분식 업체도 여럿 참석하여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다.

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, 고용 창출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개최되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. 이번 행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식 관련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면서 다른 업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'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' 라기보다 '외식산업박람회'에 가까웠으며,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테이블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.

다음 행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업체가 참석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.